



신행수기

졸탁의 인연에 대한 기억 <상> 한인숙 (원주시 가현동)

한 세계를 깨는 건 언제나 위험하다. 그리고 그 세계가 왜 깨졌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세계를 깨치고 나가야 함을 모른다 것은 더 위험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절은 오대산 북대에 있다. 북대사. 선방인 이곳을 알게 된 것도 고3때 만난 스님의 덕이다. 인적이 없는 적막함도 마음에 들지만, 그 길로 가는 곳곳에 있는 자작나무를 나는 사랑한다. 백석시 인은 맑고 정갈한 나무, 갈매나무를 생각하곤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있어 하얗게 빛나는 나무는 자작나무이다. 북대 오르는 길의 자작나무는 어느 길의 자작나무와는 다르다. 몇 백년 묵은 것이 많고 어느 것보다 좀 붉다. 황금빛이 돌기도 한다.

세상에 내려오면 마음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다.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싸우기도 한다. 이렇게 내 마음이 깨어질 때, 난 조용히 빛나던 그 자작나무를 떠올리곤 한다.

몇 백 년 동안 자신을 벗겨내며 키워 가는 자작나무 앞에 서서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의 세상을 깨야 하는지를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아직 그 자작나무를 모를 때쯤에 깨어진 세상 앞에서 아파했던 나의 기억들을 이제는 풀어야 했다.

첫 번째 기억

아직도 내 기억 속엔 회색 체크무늬 교복치마 위에 단정해진 넥타이를 맨 까까머리 여자애가 겨울 앞에 서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는 겨울인데, 겨울 속에는 아직 18살의 내가 언뜻언뜻 보인다.

벌써 4년이 지났음에도 내 머릿속의 일부는 그곳에서 떠나오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불교와의 첫 만남이 아니었을까.

쾌청한 날이었다. 분명 5월의 평일 중 하루였다. 어느 때였다면 학교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인데 내가 왜 그날 조퇴를 했는지, 집에 돌아와 장능을 열고 겨울옷을 정리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나

지 않는다. 겨울옷을 정리하다, 마루로 나왔고 내리쬐는 따스한 봄 햇살 속에서 나는 그저 무심하게 내 머리카락을 저경저경 잘라냈을 뿐. 겨울 앞에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가위 놀리는 소리와 한번에 잘리지 않던 한 머더기의 머리카락 밀리는 문득한 감각이 다. 자른 머리카락을 어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머리를 자르고 미용실에 가서 밀수 있는 데까지 밀었다는 기억 뿐이다. 그리

는 마음을 내리누르려고 머리 잘랐던 것 같다. 5월의 신록 속에서 그렇게 떠나버릴 듯한 마음을 머리카락을 빗살 삼아 내리놓았던 것 같다. 그때의 날아오를 것만, 금세 떠나버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은 마치 '대지의 봄이 오는 듯한' 알 수 없는 기운들의 층간 상태'였다. 평평한.

자나고 나서 생각하건대, 이 때의 까까머리는 의도했던 것이건 아니건 간에 내가 불교라는 진리에 다가서기 위한 첫발이었

있겠다. 지금'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왜 내가 행동에 옮기지 못했는지는 모른다.

나는 내려왔고, 적멸보궁 가는 다리 위에서 눈을 보고- 나는 그때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섰다가 스님 한분을 만났다. 지나칠 수도 있었건만 나는 스님을 따라 차를 한잔 마시며 불속 던진 말이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목 메인 말과 떨어지던 눈물 방울방울.

이 때가 열 아홉 살의 겨울이었다. 성적표를 받아보고 며칠 밤을 울며 지새우고 찾아갔던 곳이 정암사였고, 어떤 의도도 없이 갔던 그곳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다. 스님이 되고 싶다는 내 말에 선뜻 내 앞에서 비구나 스님께 전 화해서 학생 하나 맡겨도 되겠냐고 물던 스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

그리곤 전화를 놓고 차 한잔이 식어갈 즈음, "어머니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시던 스님의 말에 "하루만"하고 내려오던 기억, '어머니께 말씀 하고 와야지, 딱 하루만 더 머물자' 하며 산사에서 내려오던 기억이 자리한 시간, 고3의 겨울, 그러나 난 다시 가지 못했다.

열 아홉, 내가 부딪친 절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굳건했던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고, 다른 하나는 가난이란 현실이었다.

나는 내가 시험에서 실수하리란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수는 시험에서 오행수를 바라지도 않았고, 애들처럼 떨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리만치 답답했다. 난 언제나 내 실력만큼의 족대를 가지고 확신을 세웠으며 나 자신을 믿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고 가계점에 들어가서 성적을 미리 짐작했음에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딱처를 날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순간, 현실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당연하듯 웃음이 흘렀고 시간은 갔으며 나 대신 다른 아이 이름의 원서는 떠나갔다.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일주일 밤낮을 내리우는 나는 정지된 내 시간 속에 갇혀 버렸고 기면 상태에 빠져있는 듯한 날들은 계속됐다. (계속)



그림 - 문병성

몰아치는 눈 맞으며 정암사에 도착 눈물 똑똑 흘리며 "스님이 되고 싶어요"

고, 다음날부터 나는 까까머리였다.

이때의 기억은 분명치 않다. 머리 자른 상황에 대한 기억은 아무리 꺼내 보아도 이것이 다. 다만 조금 더 생생히 남아있는 것들은 까까머리가 된 다음의 기억들이다. 당시 그나마 학교에서 우등생이던 내가 저지른 어이없는 일에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었고, 정학이란 말이 오르내렸다는 것과 말 한마디 없던 어머니께서 누워있던 나의 민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감촉, 친구들의 시선들, 그런 것들뿐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건, 이제 나도 그 때의 나 자신을 알아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 탓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분명 떠나갓단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듯하다. 수녀원을 생각한 듯한다.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떠나려

으리라.

두 번째 기억

휘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밀치고 휘날리던 눈. 한없이 몰아치던 그 바람, 나는 적멸보궁으로 가는 돌다리 중간에서 서서 다리 밑에서 서 있는 나무 사이로 떨어지던 눈의 군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전 스치듯 나온 이 때의 만남에 대해 스님이 짓은 신발만을 기억한다고 했다. 아마도 나는 그때 정암사까지의 진눈깨비 길을 한 시간 남짓 걸었었나 보다.

그리고 수미노 탑에 올랐다. 초등학교 때 딱 한번 외뎀던 이곳에 온 건 의지가 아니라 발길이었고 탑에 먼저 오른 것도 발길이었다. 탑 앞에 서서, 함박삼 골짜기 골짜기에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죽을 수도

킬레이 수행일기 (F)

심사숙고 끝에 부처님의 진자(眞子)로 삶을 이루고자 법사(法師) 행로에 대발심을 일으켰다. 법사학인 교육원 관(教育支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처음 불문에 입문하기도 힘들었지만, 불법의 의식과정으로부터 기초교리를 차례로 익히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

그간 배우고 익힌 것을 실제 체험을 통하여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직접 체험과 삼매의 수행으로 연 결시키고자 한 철야염불결사 지도는 기대 그 이상이었다. 아니 수행의 참 맛을 알게 한 중요한 체험이었다.

심념, 정념, 염불, 목탁, 철야정진 등, 그중에서도 무더운 여름밤 철야정진은 내 생애에 잊지 못할 일이었다.

한시 일본도 썰 사이 없이 정진을 계속했다. 전날 오후 4시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해 2교대로 2시간씩 전원을 묵탁 치며, 염불(나무아미타불) 수행을 했다. 참으로 잠시도 염불소리가 중단됨이 없이 다음날 오전10시까지



김상규
경원전문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

들면서 철야정진을 통하여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 그야말로 눈물과 침화, 내 삶의 허점들이,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삼악도(三惡道)에 허덕이는 나를 보는 순간 한없이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바로 참회의 감로였다.

내 몸속에 있는 악한 업보가 자꾸 얽어지고, 착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 가는 걸 확인하면서, 또 가정에도 더

기초교리·의식 익혀 법사과정 공부 염불삼매 체험으로 정화된 삶 얻어

철야법회를 가졌다. 회향법회까지 잡은 자지 못했지만, 몸은 가뿐하고 정신은 맑았다.

나는 고성염불과 평음염불을 번갈아가며 마음자리를 정화했다. 4물의 음향소리에 맞춰 목탁작법과 염불소리라는 참석자는 물론이고 듣는 이로 하여금 혼침과 번뇌, 일장과 미혹을 씻어내는 법음이 됐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미묘한 '쾌락법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염불과 목탁의 동작은 한 박자 한 음향이 일체가 되어 동음으로 마음을 정화시켰다. 염불과 목탁의 동작은 그대로 무아경지에 들어 법의 음성과 혼연 일치가 됐고, 몸과 소리와 동작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작용하는 것을 느꼈다.

염불소리는 아미타부처님의 불력 염불에 의해 무량광명을 비추었고 행하는 행법의 신심수행은 심심작불(心心作佛)을 행하는 심심법(心心法)으로 발현됐다. 염불삼매 속에서 자신의 기도 원력의 경계가 그대로 부처님과 합일되어지는 현전삼매 체험을 느끼기도 했다. 나의 모습은 그대로 염불삼매에 들었고, 무아경지(無我境地)에

속 착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도 했다. 그 가운데서도 시간이 가면 단상에 서 108배, 1000배 정진 기도도 나를 하심하며 다스렸고, 3시간여 동안 1000배의 절을 하면서 내 몸 속에 있는 '팍'과 함께 '업'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무언가 모를 힘을 느꼈다. 자신이 불법에 뿌리내리는 것과 느낌, 그리고 불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인간 '정화(淨化)' 작업, 나는 정말로 불법만이 이 난세(亂世)를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절감했다.

이제 불교는 세세간의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21세기 인류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걸맞은 교리, 사상이 바로 불교에 있다는 것이다. 아니 미래지식인들은 불교에서 그 가르침과 해법을 찾았고, 또 찾아야 한다고 이미 단언하고 있다. '불교에 내일의 행복이 있다'고 말이다.

지금부터 시간을 더욱 많이 활용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초발심을 다시 가다듬어 꾸준히 불교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려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사나 석가모니불 (끝)

제42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천경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여내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12월 31일(금)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등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담 뒤를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안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민일결사 **법왕정사서울군자법당**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루 4층

문의 전화: 02)456-4994, 0035(팩스 전용), http://cafe.daum.net/sorisan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움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결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 의 지중안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 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던 중 **본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호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속능증, 소아알러지, 신경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셨지만 편안 한 마음으로 꼭 한번 체험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사주학특강반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등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부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까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이끼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수 누비(울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체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스피 치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기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정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